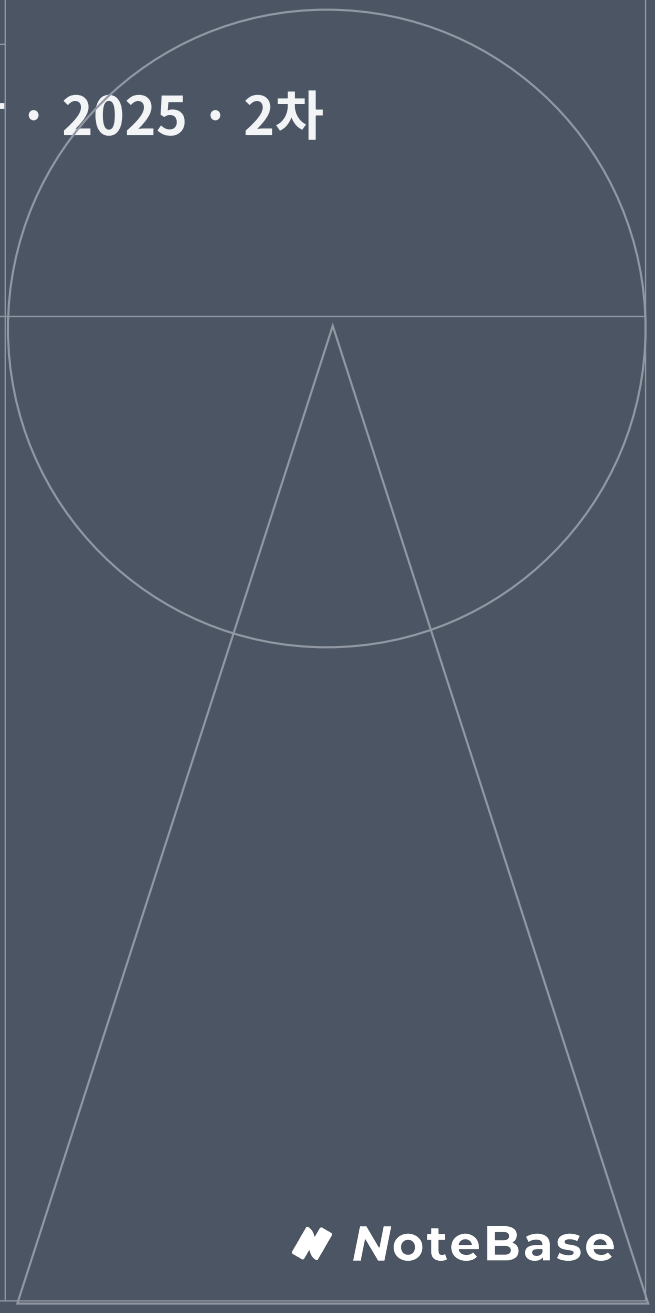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25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25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25 · 2차

문 1. 목표지향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숙달목표(mastery goal)를 가진 학습자는 과제의 숙달 및 향상, 이해증진 등 학습과정 자체를 중시한다.

② 수행목표(performance goal)를 가진 학습자는 자신의 능력이 타인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받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학습과제를 수행한다.

③ 수행회피목표(performance-avoidance goal)를 가진 학습자는 자신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④ 과제회피목표(work-avoidance goal)를 가진 학습자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과제를 마치려고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목표지향성 이론에서 숙달목표, 수행목표, 수행회피목표, 과제회피목표의 핵심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숙달목표는 이해와 능력 향상 자체를 기준으로 학습하는 목표이다. 키워드는 숙달, 향상, 이해증진이다.
수행목표는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려는 목표이다. 키워드는 평가, 비교, 유능성 입증이다.
수행회피목표는 무능해 보인다는 평가를 피하려는 목표이다. 키워드는 실패 회피, 무능 노출 회피이다.
과제회피목표는 과제를 배우기보다 적은 노력으로 끝내는 데 초점을 두는 목표이다. 키워드는 최소 노력, 과제 회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숙달목표 학습자는 과정을 통해 실력이 늘고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중시한다. 진도 경쟁보다 과제의 숙달과 자기 향상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타인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받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이다. 수행목표 학습자는 바로 그 타인의 평가와 사회적 비교에 관심을 두며, 자신의 능력이 유능하게 보이도록 과제를 수행한다.
③ O: 수행회피목표는 실패 자체보다 무능해 보이는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자신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피하려 한다는 설명은 옳다.
④ O: 과제회피목표는 학습 성취보다 일을 적게 하고 빨리 끝내는 데 초점이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과제를 마치려 한다는 설명은 옳다.

오답 포인트

수행목표와 숙달목표를 모두 '성취하려는 목표'로만 묶어 보면 ②를 놓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수행목표를 과정 중심처럼 바꾸어 놓은 '타인의 평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라는 표현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목표지향성 문항은 먼저 판단 기준이 자기 향상인지, 타인과의 비교인지, 무능 노출 회피인지, 노력 최소화인지를 구분하면 된다. 과정과 이해를 말하면 숙달목표, 평가와 유능함 과시를 말하면 수행목표, 창피와 무능 노출 회피를 말하면 수행회피목표, 대충 끝내기를 말하면 과제회피목표이다.

암기 포인트

숙달은 배우기, 수행은 보여주기, 수행회피는 창피 피하기, 과제회피는 적게 하기이다.

NoteBase

문 2. 던(W. N. Dunn)의 정책평가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효과성(effectiveness)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한 노력 정도이다.

② 능률성(efficiency)은 정책을 통한 목표 달성 정도이다.

③ 충족성(adequacy)은 사회 여러 집단 간에 정책의 비용과 편익이 고르게 배분된 정도이다.

④ 대응성(responsiveness)은 정책의 결과가 특정 집단의 필요, 선호, 가치에 부합하는 정도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던의 정책평가 기준 가운데 효과성, 능률성, 충족성, 형평성, 대응성의 정의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효과성은 정책이 목표를 실제로 얼마나 달성했는가의 정도이다. 능률성은 목표 달성에 들어간 노력과 비용 대비 성과의 관계이다. 충족성은 정책 성과가 문제 해결에 얼마나 충분한가의 정도이다. 형평성은 정책의 비용과 편익이 집단 간에 얼마나 공정하게 배분되었는가의 정도이다. 대응성은 정책 결과가 특정 집단의 필요, 선호, 가치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의 정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한 노력 정도'라는 표현이 틀렸다. 이는 효과성이 아니라 능률성에 가까운 설명이다. 효과성은 투입 노력 자체가 아니라 정책목표 달성 정도를 뜻한다.
② X. '정책을 통한 목표 달성 정도'라는 표현이 틀렸다. 이는 능률성이 아니라 효과성의 정의이다. 능률성은 같은 목표를 얼마나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달성했는가를 본다.
③ X. '사회 여러 집단 간에 정책의 비용과 편익이 고르게 배분된 정도'라는 표현이 틀렸다. 이는 충족성이 아니라 형평성의 정의이다. 충족성은 정책 성과가 문제 해결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정도를 뜻한다.
④ O. 대응성은 정책의 결과가 특정 집단의 필요, 선호, 가치에 부합하는 정도를 뜻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효과성과 능률성, 충족성과 형평성을 서로 바꾸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목표 달성 여부를 묻는지, 비용 대비 성과를 묻는지, 문제 해결의 충분성을 묻는지, 집단 간 공정 배분을 묻는지를 구분하면 오답을 피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의의 중심어를 먼저 잡으면 판단이 쉬워진다. 목표 달성 정도이면 효과성, 비용과 노력 대비 성과이면 능률성, 문제 해결의 충분성이면 충족성, 집단 간 공정 배분이면 형평성, 수요자 요구 부합이면 대응성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효과는 목표 달성, 능률은 비용 대비, 충족은 충분성, 형평은 공정 배분, 대응은 수요자 부합이다.

NoteBase

문 3. 교육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미나(seminar): 일정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를 토대로 참가자 모두가 함께 토론하는 방식

②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구성원들의 창의적이고 자유분방한 발상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③ 버즈 토론(buzz discussion): 소집단 편성 후 참가자 모두가 참여하여 주제나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하는 방식

④ 직소 모델(jigsaw model): 사전에 교사가 자료를 배포하여 학습자가 미리 공부하게 한 다음, 교실에서 질의, 토론, 문제 풀이를 하는 방식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세미나, 브레인스토밍, 버즈 토론, 직소 모형의 핵심 운영 방식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세미나는 일정 주제에 대한 발표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방식이다.
브레인스토밍은 비판을 유보하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많이 산출하는 방식이다.
버즈 토론은 소집단을 만들어 짧고 집중적으로 주제나 문제를 토의하는 방식이다.
직소 모형은 각 학습자가 부분 과제를 맡아 전문가 집단에서 학습한 뒤 원집단으로 돌아와 서로 가르치며 전체 학습을 완성하는 협동학습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세미나는 특정 주제에 대한 발표와 그에 대한 공동 토론이 중심이 되는 방식이므로 제시된 설명과 맞는다.
② O: 브레인스토밍은 구성원의 자유분방한 발상을 통해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그 아이디어를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방식이므로 옳다.
③ O: 버즈 토론은 참가자 전원이 소집단에 나뉘어 주제나 문제점을 토의하는 방식이므로 설명이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사전에 교사가 자료를 배포하여 학습자가 미리 공부하게 한 다음, 교실에서 질의, 토론, 문제 풀이를 하는 방식"이다. 이는 직소 모형이 아니라 플립드 러닝의 설명이다. 직소 모형은 학습자들이 서로 다른 부분 과제를 맡아 전문가 집단에서 익힌 뒤 원집단에서 동료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4번은 협동학습 모형인 직소와 수업 전 예습 후 수업 시간 활동을 강조하는 플립드 러닝을 바꿔 놓은 선지이다. 직소는 역할 분담과 동료 교수, 플립드 러닝은 선행학습 후 교실 활동이라는 운영 구조의 차이를 잡아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교수·학습 방법 문제는 먼저 운영 구조를 본다. 발표 후 전체 토론이면 세미나, 자유연상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면 브레인스토밍, 소집단 동시 토의면 버즈 토론, 부분 학습 후 서로 가르치면 직소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직소는 나누어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협동학습이고, 플립드 러닝은 미리 공부하고 교실에서 적용하는 수업 방식이다.

NoteBase

문 4. 글레이저(R. Glaser)의 수업모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수업목표, (나) 성취도 평가, (다) 수업절차, (라) 출발점 행동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라) → (다) → (나)
③ (라) → (나) → (가) → (다)
④ (라) → (가) → (다) → (나)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레이저의 수업모형에서 수업목표, 출발점 행동, 수업절차, 성취도 평가의 선후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수업목표: 도달해야 할 목표 행동을 먼저 분명히 한다.
2. 출발점 행동: 학습자의 현재 수준과 선수학습 정도를 목표에 비추어 진단한다.
3. 수업절차: 목표와 출발점 행동에 맞게 교수 내용과 방법을 조직한다.
4. 성취도 평가: 수업 뒤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한다.

왜 이 순서인가: 출발점 행동 진단이 있어야 학습자 수준에 맞는 수업절차를 짤 수 있고, 성취도 평가는 수업이 끝난 뒤 목표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배열이 '(가)→(나)→(다)→(라)'로, 성취도 평가에 해당하는 (나)를 수업절차에 해당하는 (다)보다 앞에 둔 점이 틀리다. 평가는 수업 뒤에 이루어지므로 올바른 순서는 '(가)→(라)→(다)→(나)'이다.
② O: 수업목표를 세운 뒤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업절차를 구성한 다음 성취도 평가를 하는 순서이므로 맞다.
③ X: 출발점 행동을 수업목표보다 먼저 두고 성취도 평가도 지나치게 앞에 배치한 점이 틀리다. 출발점 행동은 목표를 기준으로 진단하며 평가는 마지막에 온다. 올바르게는 '(가)→(라)→(다)→(나)'이다.
④ X: 출발점 행동을 수업목표보다 먼저 둔 점이 틀리다. 무엇을 성취시킬지 목표를 정한 뒤 그 목표에 비추어 학습자의 출발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가)→(라)→(다)→(나)'이다.

오답 포인트

출발점 행동과 성취도 평가는 모두 '평가'의 성격을 띠어 위치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출발점 행동은 수업 전 진단이고 성취도 평가는 수업 후 결과 확인이라는 점이 핵심 구분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업모형의 순서 문제는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 목표를 기준으로 학습자의 현재 수준을 본 뒤, 수업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결과를 평가하는 흐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글레이저는 '목표 설정 → 수준 진단 → 수업 진행 → 성취 평가'의 흐름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설계의 유형은?

◯ 유사하거나 인접한 학문을 모아 하나의 교과를 구성한다.
◯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의 학문을 모아 '과학'이라는 교과를 구성할 수 있다.
◯ 학습자는 각 학문 속에 들어 있는 지식, 기능, 가치를 고루 습득하기 쉽다.

① 학습자 중심 설계
② 다학문적 설계
③ 백워드 설계
④ 사회중심 설계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교육과정 설계 유형 중 다학문적 설계의 의미와 다른 설계 유형의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다학문적 설계는 유사하거나 인접한 여러 학문의 내용을 한 교과 안에 함께 묶어 조직하는 설계이다. 학습자 중심 설계는 학습자의 흥미, 필요, 경험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설계이다. 백워드 설계는 기대하는 학습결과와 평가 증거를 먼저 정한 뒤 학습경험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사회중심 설계는 사회적 요구, 사회문제, 사회개혁의 방향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설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학습자 중심 설계는 학습자의 흥미와 필요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정하는 설계이다. 제시문은 여러 학문을 묶어 하나의 교과를 만드는 방식이므로 학습자 중심 설계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학습자 중심 설계'이다. 올바르게는 '다학문적 설계'이다.
② O: 유사하거나 인접한 학문을 통합하여 하나의 교과를 구성하고, 물리학·화학·생물학·지구과학을 묶어 과학 교과를 만드는 예시는 다학문적 설계에 해당한다. 학문별 지식, 기능, 가치를 폭넓게 다루기 쉽다는 점도 이 설계의 특징이다.
③ X: 백워드 설계는 학문 통합 방식이 아니라 설계 절차의 문제이다.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 목표를 확인할 평가 증거를 설계한 뒤 학습활동을 구성하는 방식이 백워드 설계이다. 틀린 표현은 '백워드 설계'이다. 올바르게는 '다학문적 설계'이다.
④ X: 사회중심 설계는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적응, 사회개혁 같은 사회적 요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설계이다. 제시문처럼 인접 학문을 묶어 교과를 만드는 설명과는 기준이 다르다. 틀린 표현은 '사회중심 설계'이다. 올바르게는 '다학문적 설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제시문에 '하나의 교과를 구성한다'는 표현이 있어 막연히 통합이나 설계 일반을 떠올리면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핵심은 무엇을 기준으로 묶는가인데, 학습자나 사회가 아니라 '유사하거나 인접한 학문'을 기준으로 묶는다는 점이 결정적 단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 판단에서는 먼저 교육과정 조직의 기준을 본다. 학문끼리 묶으면 다학문적 설계이고, 학습자의 흥미와 필요가 기준이면 학습자 중심 설계이며, 목표와 평가를 먼저 세우면 백워드 설계이고, 사회문제나 사회적 요구가 기준이면 사회중심 설계이다.

암기 포인트

인접 학문을 한 교과로 묶으면 다학문적 설계이고, 목표와 평가를 먼저 세우면 백워드 설계이다.

NoteBase

문 6. 다음 설명과 길포드(J. P. Guilford)가 제시한 창의성 구성 요소 (A ~ C)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
(나) 특정 범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범주의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

A. 독창성(originality)
B. 융통성(flexibility)
C. 유창성(fluency)

① (가): A, (나): C
② (가): B, (나): C
③ (가): C, (나): A
④ (가): C, (나): B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길포드가 제시한 창의성 구성 요소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의 정의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유창성은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아이디어를 빠르게 산출하는 능력이다.
융통성은 한 범주에 머물지 않고 서로 다른 범주의 아이디어로 전환하는 능력이다.
독창성은 드물고 새롭고 남과 다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가)를 A 독창성으로 연결한 부분이 틀리다.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는 새로움보다 아이디어 수를 묻는 표현이므로 C 유창성이다. (나)를 C 유창성으로 연결한 부분도 틀리다. "다양한 범주의 아이디어"는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범주 전환 능력이므로 B 융통성이다. 올바르게는 (가)=C, (나)=B이다.
2번 X: (가)를 B 융통성으로 연결한 부분이 틀리다. (가)는 범주의 다양성이 아니라 아이디어 산출량을 묻기 때문에 C 유창성이다. (나)를 C 유창성으로 연결한 부분도 틀리다. (나)는 여러 범주로 사고를 바꾸는 능력이므로 B 융통성이다. 올바르게는 (가)=C, (나)=B이다.
3번 X: (가)를 C 유창성으로 연결한 것은 맞다. 그러나 (나)를 A 독창성으로 연결한 부분이 틀리다. 독창성은 드문 아이디어의 새로움을 뜻하고, (나)의 핵심인 "다양한 범주"는 B 융통성이다. 올바르게는 (가)=C, (나)=B이다.
4번 O: (가)를 C 유창성으로, (나)를 B 융통성으로 연결했으므로 옳다. 유창성은 아이디어의 양, 융통성은 아이디어 범주의 다양성으로 구분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많은 아이디어"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같은 뜻으로 섞으면 오답이 된다. 이 문항은 양을 묻는 유창성과 범주 전환을 묻는 융통성을 일부러 비슷하게 제시했고, 독창성도 그럴듯한 오답으로 끼워 넣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창의성 요소 문제는 먼저 문장이 아이디어의 수를 묻는지, 범주의 다양성을 묻는지, 새로움과 희귀성을 묻는지부터 구분하면 된다. 수가 핵심이면 유창성, 범주 전환이 핵심이면 융통성, 새로움이 핵심이면 독창성이다.

암기 포인트

유창성은 많이, 융통성은 넓게, 독창성은 새롭게이다.

NoteBase

문 7. 상담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실치료 상담은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현재 행동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② 교류분석 상담은 내담자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양식을 합리적이고 성숙한 것으로 변화하도록 돕는 것이다.

③ 인간중심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강조하며, 수용적 태도,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계를 중요시한다.

④ 행동주의 상담은 내담자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소거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하도록 돕는 것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주요 상담이론의 대표 목표와 핵심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현실치료 상담: 현재 행동과 선택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행동이 욕구 충족에 효과적인지 스스로 평가하게 하여 더 책임 있는 선택을 하도록 돕는 이론이다.
교류분석 상담: 부모 자아, 어른 자아, 어린이 자아의 자아상태와 사람 사이의 교류 패턴, 삶의 각본을 분석하여 비자율적인 반복 양식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이론이다.
인간중심 상담: 상담관계 자체를 변화의 핵심으로 보며,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진실성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행동주의 상담: 부적응 행동은 약화하거나 소거하고 바람직한 행동은 강화와 학습을 통해 형성한다는 관점의 이론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현실치료는 내담자가 자신의 현재 행동을 평가하고 더 효과적인 행동을 선택하도록 돕는 상담이다. 선지의 '현재 행동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도록 돕는다'는 진술은 현실치료의 핵심과 맞는다.
② X: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양식을 합리적이고 성숙한 것으로 변화'는 엘리스의 합리정서행동치료에 가까운 설명이다. 교류분석 상담의 핵심은 자아상태와 교류, 삶의 각본을 분석하여 자율성을 회복하게 하는 데 있다. 틀린 표현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양식을 합리적이고 성숙한 것으로 변화'이고, 올바르게는 '자아상태와 교류 패턴을 이해하고 비생산적인 삶의 각본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회복하도록 돕는다'이다.
③ O: 인간중심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중시하며, 수용적 태도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핵심 조건으로 본다. 선지의 취지는 인간중심 상담의 기본 입장과 일치한다.
④ O: 행동주의 상담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소거하거나 약화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새롭게 학습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선지의 설명은 행동주의 상담의 전형적인 목표를 적절히 나타낸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비합리적 사고의 수정'이라는 표현 때문에 상담이론 전반에 두루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는 교류분석이 아니라 합리정서행동치료의 대표 진술이다. 상담이론 문제에서는 이론 이름보다 핵심 키워드의 소속을 구분하지 못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담이론 문제는 선지의 핵심 동사를 먼저 본다. '현재 행동 평가'는 현실치료, '비합리적 사고 수정'은 합리정서행동치료,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인간중심 상담, '강화·소거·학습'은 행동주의 상담으로 연결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현실치료는 현재 행동, 교류분석은 자아상태와 교류, 인간중심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행동주의는 강화와 소거이다.

NoteBase

문 8. 의사결정 모형 중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린드블룸(C. E. Lindblom)이 제시한 모형이다.

② 대안은 일반적으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③ 비합리적이고 우연적인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④ 급격한 변화나 장기적 전망에 따른 계획적 변화를 거부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점증모형의 제안자와 핵심 특징인 기존 정책의 부분 수정, 제한된 비교, 급격한 변화 회피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점증모형은 린드블롬이 제시한 의사결정 모형으로, 현실에서 모든 대안을 한꺼번에 최적화하기보다 기존 정책을 조금씩 수정하는 방식의 결정을 설명한다. 정보와 시간의 제약을 전제로 하므로 포괄적 장기 계획보다 점진적 조정을 중시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점증모형은 C. E. Lindblom이 제시한 모형이다. 점증주의는 거대한 설계보다 현실 가능한 소폭 조정을 중시한다.
2번: O. 점증모형의 대안은 기존 정책과 완전히 단절된 새 방안이 아니라 현행 정책의 문제점을 조금씩 고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3번: X. 틀린 표현은 '비합리적이고 우연적인 의사결정'이다. 점증모형은 제한된 합리성 아래에서 부분 비교와 점진적 수정을 중시하는 모형이지, 우연한 결합에 맡기는 모형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제한된 합리성 아래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의사결정을 강조한다'가 된다.
4번: O. 점증모형은 급격한 변화나 장기 전망에 따른 대대적 설계보다 당장 조정 가능한 작은 변화를 선호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비합리적이고 우연적'이라는 표현이 함정이다. 이는 쓰레기통 모형처럼 우연한 결합을 강조하는 설명에 가깝고, 점증모형의 핵심은 기존 정책의 소폭 수정과 제한된 비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린드블롬, 기존 정책의 부분 수정, 소폭 변화, 단기적 조정 가능성이 나오면 점증모형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우연한 선택, 비조직적 결합, 비합리성이 전면에 나오면 다른 모형과 구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점증모형은 린드블롬, 기존 정책의 소폭 수정, 쓰레기통 모형은 우연한 결합이라는 대비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급경영 개념의 관점은?

◯ 도일(W. Doyle)이 이 관점의 대표적 학자이다.
◯ 훈육의 관점, 생활지도 관점, 학급행동지도 관점이 포함된다.

① 질서유지로서 학급경영
② 조건정비로서 학급경영
③ 교육경영으로서 학급경영
④ 조장활동으로서 학급경영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학급경영을 질서유지, 조건정비, 교육경영, 조장활동의 관점으로 구별하고, Doyle과 훈육·생활지도·학급행동지도의 연결을 아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질서유지로서 학급경영은 학급의 규칙, 훈육, 생활지도, 행동지도를 통해 수업이 가능한 질서를 유지하는 관점이다. 조건정비로서 학급경영은 시설, 시간, 자료, 분위기 등 교수·학습의 환경과 조건을 정비하는 관점이다. 교육경영으로서 학급경영은 학급을 교육조직으로 보고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운영·평가하는 관점이다. 조장활동으로서 학급경영은 학생의 자율성, 참여, 성장, 집단활동을 촉진하는 관점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Doyle은 학급의 질서와 행동관리를 중시한 대표 학자이며, 제시문에 나온 훈육의 관점, 생활지도 관점, 학급행동지도 관점은 모두 학급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과 직접 연결된다.
2번: X. 틀린 부분은 '조건정비'이다. 조건정비는 물리적 환경, 시간 운영, 자료 준비, 분위기 조성처럼 수업 여건을 갖추는 관점이다. 제시문은 환경 정비가 아니라 훈육과 행동지도를 말하므로 올바르게는 질서유지로서 학급경영이다.
3번: X. 틀린 부분은 '교육경영'이다. 교육경영은 교육목표 설정, 교수·학습 운영, 평가 등 학급의 교육활동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관점이다. 제시문은 교육과정 운영 전반보다 질서와 행동지도를 강조하므로 올바르게는 질서유지로서 학급경영이다.
4번: X. 틀린 부분은 '조장활동'이다. 조장활동은 학생의 자치, 참여, 성장 촉진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제시문은 학생 활동의 자율적 촉진이 아니라 훈육과 생활지도를 통한 질서 형성을 말하므로 올바르게는 질서유지로서 학급경영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생활지도라는 표현 때문에 학생 성장 지원이나 교육활동 전반을 떠올리기 쉽지만, Doyle과 학급행동지도라는 단서가 붙으면 초점은 자율성 촉진이 아니라 질서 유지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 훈육, 규칙, 생활지도, 행동지도, Doyle이 나오면 먼저 질서유지 관점을 본다. 환경과 여건을 갖추는 내용이면 조건정비,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이면 교육경영, 학생 자치와 성장 촉진이면 조장활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Doyle-훈육-행동지도는 질서유지, 환경은 조건정비, 수업 운영은 교육경영, 자치 촉진은 조장활동이다.

NoteBase

문 10. 중세시대 대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세 최초의 대학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이다.
ㄴ. 자유학과는 전공교육 이전에 거쳐야 할 예비교육의 성격을 지녔다.
ㄷ.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세금과 군역이 면제되었다.
ㄹ. 자유학과 중 문법, 산술, 논리학은 3학(trivium)에 속한 교과목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세 대학의 성립 특징, 자유학과의 성격, 그리고 3학과 4학의 구성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중세 대학: 교회와 도시의 후원 속에서 형성된 고등교육기관으로, 학생과 교수가 일정한 자치권과 특권을 누렸다.
중세 최초의 대학은 1088년에 설립된 볼로냐 대학이며,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1386년에 세워진 독일 최초의 대학이다.
자유학과: 신학·법학·의학 같은 상급 학부에 들어가기 전 기초 교양을 배우는 예비교육 단계이다.
3학과 4학: 3학은 문법·수사학·논리학이고, 4학은 산술·기하·천문·음악이다.
학생 특권: 중세 대학 학생은 성직자에 준하는 지위를 바탕으로 세금과 군역 면제 같은 특권을 누리기도 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ㄱ, ㄴ의 조합인데 ㄱ이 틀려서 오답이다. ㄱ의 틀린 표현은 "중세 최초"와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연결이다. 중세 최초의 대학은 1088년에 설립된 볼로냐 대학이며,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1386년에 세워진 독일 최초의 대학으로 중세 최초 대학이 아니다. ㄴ은 자유학과가 전공 이전의 예비교육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옳다.
2번 X: ㄱ, ㄹ의 조합인데 둘 다 틀려서 오답이다. ㄱ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중세 최초 대학으로 본 점이 틀렸고, ㄹ은 "산술"을 3학에 넣은 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3학은 문법·수사학·논리학이고, 산술은 4학에 속한다.
3번 O: ㄴ, ㄷ의 조합으로 두 진술이 모두 옳다. ㄴ은 자유학과가 상급 학부 진학 이전의 기초 교양교육이라는 점에서 맞다. ㄷ도 중세 대학 학생들이 성직자적 특권에 기대어 세금과 군역을 면제받은 경우가 있었다는 점에서 맞다.
4번 X: ㄷ, ㄹ의 조합인데 ㄷ은 옳지만 ㄹ이 틀려서 오답이다. ㄹ의 틀린 표현은 "문법, 산술, 논리학은 3학"이라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문법, 수사학, 논리학이 3학이고 산술은 4학이다.

오답 포인트

하이델베르크 대학처럼 익숙한 대학 이름을 보면 최초 대학으로 착각하기 쉽고, 3학과 4학은 과목 이름이 비슷해 산술을 3학에 잘못 넣기 쉽다. 이 문항은 자유학과의 예비교육 성격은 알고 있어도 3학 구성과 최초 대학을 혼동하면 틀리도록 설계되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세 대학 문항은 먼저 자유학과가 상급 학부 이전의 기초과정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3학은 언어와 논리 중심, 4학은 수와 자연 질서 중심이라는 기준으로 과목을 나누면 판단이 빨라진다. 대학의 역사 서술은 "최초", "처음" 같은 표현이 나오면 대표 대학명을 정확히 대조해야 한다.

암기 포인트

자유학과는 예비교육, 3학은 문법·수사학·논리학, 산술은 4학, 하이델베르크는 최초 대학이 아니다.

NoteBase

문 11. 임상장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교실에서 장학사와 교사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ㄴ. 수업계획, 수업관찰, 결과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체계적으로 수업문제를 해결한다.
ㄷ. 수업개선을 위해 교사들이 서로 협동하는 장학형태이다.
ㄹ. 교사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독립적으로 실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임상장학의 핵심 특징을 동료장학과 자기장학의 특징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임상장학은 교실 수업을 직접 관찰하고 수업 전 협의, 수업 관찰, 결과 협의를 거쳐 수업을 개선하는 장학이다. 동료장학은 교사들이 서로 협력하여 수업을 개선하는 장학이다. 자기장학은 교사가 스스로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장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ㄱ, ㄴ의 조합이다. ㄱ은 임상장학이 실제 교실 수업을 대상으로 하며 장학담당자와 교사의 밀접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ㄴ은 수업계획 협의, 수업관찰, 결과협의의 절차를 거쳐 수업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므로 옳다.
② X: ㄱ, ㄹ의 조합이다. ㄱ은 옳지만 ㄹ의 '교사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독립적으로 실천한다'는 표현이 틀린 부분이다. 이는 임상장학이 아니라 자기장학의 설명이다. 실제로 임상장학은 장학담당자와의 협의와 관찰, 피드백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X: ㄴ, ㄷ의 조합이다. ㄴ은 옳지만 ㄷ의 '교사들이 서로 협동하는 장학형태'라는 표현이 틀린 부분이다. 이는 동료장학의 설명이다. 실제로 임상장학은 동료 교사 간 협동 자체보다 수업 관찰과 협의에 의한 개별 수업 개선에 초점을 둔다.
④ X: ㄷ, ㄹ의 조합이다. ㄷ은 동료장학의 특징이고 ㄹ은 자기장학의 특징이므로 둘 다 임상장학의 설명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임상장학은 수업 전 협의, 수업관찰, 결과협의를 통해 수업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장학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임상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은 모두 수업 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ㄷ의 '교사들이 서로 협동'이라는 표현을 임상장학으로 착각하거나, ㄹ의 '스스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독립적으로 실천'이라는 표현을 전문성 신장이라는 공통 목표만 보고 임상장학으로 오인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장학 유형 문제는 누가 중심이 되어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먼저 본다. 장학담당자와 교사가 수업을 관찰하고 협의하면 임상장학이고, 교사끼리 협력하면 동료장학이며, 교사 혼자 계획하고 실천하면 자기장학이다.

암기 포인트

임상장학은 수업 전 협의-수업 관찰-결과 협의, 동료장학은 교사 상호협력, 자기장학은 교사 자율실천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기획의 접근방법은?

◯ 교육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수요 접근법이라고도 한다.
◯ 모든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자원 여유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① 사회수요 접근법(social demand approach)
② 인력수요 접근법(manpower demand approach)
③ 수익률 접근법(rate of return approach)
④ 국제비교 접근법(international comparison approach)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교육기획의 여러 접근법 가운데 사회수요 접근법의 핵심 전제와 한계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사회수요 접근법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접근법이다. 인력수요 접근법은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에 필요한 인력을 예측하여 교육 규모를 정하는 접근법이다. 수익률 접근법은 교육투자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접근법이다. 국제비교 접근법은 다른 나라의 교육지표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접근법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제시문은 교육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과, 자원이 부족할 때 우선순위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함께 말한다. 이는 교육수요 접근법이라고도 불리는 사회수요 접근법의 설명과 일치한다.
2번: X. 틀린 부분은 교육기회 확대를 모든 교육희망자의 수요 충족과 연결한 점을 인력수요 접근법으로 본 것이다. 인력수요 접근법은 노동시장과 국가 인력계획에 필요한 인재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이지, 개인의 교육희망 자체를 최대한 수용하는 접근법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산업과 직업세계의 인력 필요량을 기준으로 교육규모를 계획하는 접근법이다.
3번: X. 틀린 부분은 자원 배분의 경제적 효율성보다 교육기회 보장을 앞세운 설명을 수익률 접근법으로 본 것이다. 수익률 접근법은 교육단계나 투자대안의 비용 대비 편익, 개인적·사회적 수익을 따져 우선 투자 대상을 정하는 접근법이다. 올바르게는 교육투자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접근법이다.
4번: X. 틀린 부분은 교육받고자 하는 사람의 수요 충족 논리를 국제비교 접근법으로 본 것이다. 국제비교 접근법은 다른 국가의 취학률, 교육연한, 재정투자 수준 등을 비교 준거로 삼아 자국의 교육계획 목표를 세우는 방식이다. 올바르게는 국가 간 비교자료를 활용해 교육발전 수준과 목표를 설정하는 접근법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사회수요 접근법과 인력수요 접근법은 모두 '수요'라는 말을 쓰므로 명칭만 보고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수요의 주체가 개인의 교육희망인지, 국가·산업의 인력필요인지가 핵심 구별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나 제시문에 교육기회 균등, 교육희망자 충족, 교육수요 확대가 나오면 사회수요 접근법을 먼저 떠올린다. 반대로 노동시장 필요 인력, 산업수요, 경제개발 계획이 나오면 인력수요 접근법으로 판단하고, 비용 대비 편익이 나오면 수익률 접근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수요는 배우고 싶은 사람 기준, 인력수요는 길러야 할 인력 기준, 수익률은 투자 효율 기준, 국제비교는 다른 나라 비교 기준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철학 사조는?

◯ 르네상스 이후 16~17세기 유럽에서 발달하였다.
◯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지식보다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지식을 다루었다.
◯ 실험·관찰의 방법과 자연과학 교과목을 중요시하였다.

① 실존주의(existentialism)
② 본질주의(essentialism)
③ 항존주의(perennialism)
④ 실학주의(realism)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교육철학 사조 중 실학주의의 성립 시기, 지식관,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의 특징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실학주의는 르네상스 이후 16~17세기 유럽에서 발달한 사조로, 관념적 추상보다 외부 세계의 구체적 사물과 감각 경험을 중시한다. 그래서 실험·관찰의 방법과 자연과학 교과를 중요하게 본다.

선지별 해설

1번 X: 실존주의는 19~20세기에 개인의 실존, 자유, 선택, 주체성을 강조한 사조이다. 틀린 표현은 '실존주의'이다. 올바르게는 제시문처럼 16~17세기 유럽, 구체적 사물에 대한 지식, 실험·관찰과 자연과학 중시는 실학주의에 해당한다.
2번 X: 본질주의는 현대 교육사조로서 기본 교과와 핵심 지식의 체계적 전달을 중시한다. 틀린 표현은 '본질주의'이다. 올바르게는 제시문의 핵심 단서인 구체적 사물, 감각 경험, 자연과학 강조는 본질주의보다 실학주의의 특징이다.
3번 X: 항존주의는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 이성, 고전 읽기와 자유교육을 중시한다. 틀린 표현은 '항존주의'이다. 올바르게는 제시문은 추상적 진리보다 구체적 사물과 자연 탐구를 중시하므로 항존주의가 아니라 실학주의를 가리킨다.
4번 O: 실학주의는 르네상스 이후 유럽에서 발달했고, 추상적 관념보다 객관적 실재와 구체적 사물의 인식을 중시한다. 교육방법으로 실험·관찰을, 교육내용으로 자연과학을 강조하므로 제시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본질주의와 항존주의도 교과와 지식을 중시한다는 점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결정 단서는 '구체적 사물', '실험·관찰', '자연과학'이며, 이 조합은 실학주의를 바로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조 문제에서 시대 단서, 지식관 단서, 교육방법 단서를 함께 묶어 판단한다. 16~17세기 유럽, 감각 경험과 구체적 사물, 실험·관찰과 자연과학이 함께 나오면 실학주의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실학주의 = 구체적 사물 + 감각 경험 + 실험·관찰 + 자연과학이다.

NoteBase

문 14. 행정과정론적 관점에서 교육행정의 정의는?

① 교육행정의 계획수립에서부터 실천, 평가에 이르는 행정의 전체 경로와 관련 행정작용의 구성 요소이다.

② 합리성을 토대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반 조직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조성하는 협동적 행위이다.

③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발휘되는 지도성이다.

④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조건을 정비하는 수단적·봉사적 활동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교육행정의 정의를 보는 대표 관점인 행정과정론, 협동행위론, 지도성론, 조건정비론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행정과정론은 교육행정을 계획, 조직, 집행, 평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정과정으로 파악하는 관점이다.
협동행위론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과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성하는 협동적 행위로 보는 관점이다.
지도성론은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교육활동을 이끄는 지도성으로 보는 관점이다.
조건정비론은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건을 정비하는 수단적·봉사적 활동으로 보는 관점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계획수립에서 실천, 평가에 이르는 전체 경로를 기준으로 교육행정을 설명하므로 행정과정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행정과정론의 핵심은 교육행정을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본다는 점이다.
2번 X: 틀린 표현은 '협동적 행위'이다. 이는 행정과정론이 아니라 협동행위론의 정의이다. 올바르게는 교육행정을 과정의 연쇄로 파악해야 한다.
3번 X: 틀린 표현은 '발휘되는 지도성'이다. 이는 지도성론의 정의이다. 올바르게는 교육행정을 계획·집행·평가의 과정으로 설명해야 한다.
4번 X: 틀린 표현은 '인적·물적 조건을 정비하는 수단적·봉사적 활동'이다. 이는 조건정비론의 정의이다. 올바르게는 교육행정을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과정 전체로 보아야 한다.

오답 포인트

각 관점은 모두 교육목적 달성을 말하지만, 무엇을 중심 개념으로 잡는지가 다르다. 2번은 협동, 3번은 지도성, 4번은 조건 정비라는 핵심어가 드러나므로 과정 중심인 1번과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중심 명사를 먼저 본다. 계획·실천·평가처럼 단계의 흐름을 말하면 행정과정론이고, 협동을 말하면 협동행위론이며, 지도성을 말하면 지도성론이고, 인적·물적 조건 정비를 말하면 조건정비론이다.

암기 포인트

과정은 계획-실천-평가, 협동은 공동행위, 지도성은 리더십, 조건정비는 인적·물적 여건 정비이다.

NoteBase

문 15. 고려의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② 무관을 선발하기 위하여 제술업과 명경업을 실시하였다.

③ 명경업은 시(詩)·부(賦)·송(頌) 등을 시험하였다.

④ 당해 과거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지공거(知貢擧)라는 칭호가 부여되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 과거제도의 도입 목적과 제술업, 명경업, 지공거의 의미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고려의 과거제는 광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 도입한 관리 선발 제도이다. 제술업은 시·부·송 같은 문장 능력을 평가하는 과목이고, 명경업은 유교 경전의 이해를 평가하는 과목이다. 지공거는 과거를 주관한 시험관이지 합격자에게 주는 칭호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1번: O. 고려의 과거제는 광종이 호족 세력을 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므로 옳다.
2번: X. 틀린 표현은 "무관을 선발하기 위하여"이다. 고려에는 조선과 같은 무과가 없었으므로 무관 선발을 위한 과거제라고 볼 수 없다. 제술업과 명경업은 모두 문관(문신)을 선발하는 과목으로, 제술업은 시·부·송 등 문장 능력을 갖춘 문관을, 명경업은 유교 경전에 밝은 문관을 뽑는 데 쓰였다. 따라서 두 과목을 무관 선발 수단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3번: X. 틀린 표현은 "명경업은 시·부·송 등을 시험하였다"이다. 시·부·송은 제술업에서 보던 문장 시험이다. 올바르게는 명경업은 유교 경전의 이해와 해석을 시험하였다.
4번: X. 틀린 표현은 "합격한 자에게 지공거라는 칭호가 부여되었다"이다. 지공거는 과거를 주관한 정시험관을 가리킨다. 올바르게는 지공거가 선발한 합격자는 문생이라 하였다.

오답 포인트

제술업과 명경업의 기능을 서로 바꾸어 기억하거나, 지공거를 합격자 호칭으로 착각하면 틀리기 쉽다.
시·부·송은 문장 시험이라는 점에서 제술업의 표지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과거제 문제는 먼저 도입 목적이 왕권 강화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제술업은 문장, 명경업은 경전, 지공거는 시험관이라는 대응 관계를 대입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광종 과거제는 왕권 강화, 제술업은 문장, 명경업은 경전, 지공거는 시험관이다.

NoteBase

문 16. 루소(J. J. Rousseau)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린이의 발달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② 자연성의 의미를 인간 내부에서 찾았다.

③ 교육방법 측면에서 은물(Gabe)을 강조하였다.

④ 자연적 벌(natural punishment)의 원리를 주장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을 대표 개념과 연결하고, 프뢰벨의 은물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핵심 정리

루소는 인간의 자연적 성장과 발달을 존중하는 소극적 교육을 강조한 사상가이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고 보고 인위적 조기 개입을 경계하였으며, 잘못의 결과를 생활 속에서 스스로 경험하게 하는 자연적 벌을 중시하였다. 반면 은물(Gabe)은 프뢰벨의 유아교육 사상에 속하는 교구 개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루소는 아동의 자연적 발달 순서를 존중하고 성인의 인위적 간섭을 최소화하는 소극적 교육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어린이의 발달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였다는 설명은 옳다.
② O: 루소는 자연성을 인간 외부의 사회 제도보다 인간 내부의 본성, 즉 타고난 선한 성향과 발달 가능성에서 찾았다. 따라서 자연성의 의미를 인간 내부에서 찾았다는 설명은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은물(Gabe)을 강조하였다'는 표현이다. 은물은 프뢰벨이 유아의 자기활동과 상징적 놀이를 위해 사용한 교구 체계이다. 루소는 은물이 아니라 소극적 교육, 자연적 발달, 자연적 벌의 원리를 강조하였다.
④ O: 루소는 인위적 체벌보다 행위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자연적 벌의 원리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연적 벌의 원리를 주장하였다는 설명은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은 '자연주의'와 '유아교육'이라는 공통 분위기 때문에 루소와 프뢰벨을 섞도록 만든 선지이다. 은물이라는 고유 키워드는 프뢰벨에 연결해야 하고, 루소의 핵심어는 소극적 교육과 자연적 벌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상가 매칭 문항은 먼저 고유 키워드를 식별하면 빠르게 정리된다. 루소가 나오면 소극적 교육, 자연적 발달, 자연적 벌을 떠올리고, 은물·유치원·자기활동이 나오면 프뢰벨로 판단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루소=소극적 교육·자연적 벌, 프뢰벨=은물·유치원이다.

NoteBase

문 17. 교육과정 개발 이론에 대한 설명과 대표 학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교육전문가보다는 현장 교사가 직접 참여하는 '단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을 강조하였다. 단원 개발은 시험적 교수학습단원 구성, 시험단원 검증, 개정 및 통합, 구조 개발, 새 단원 정착 및 확산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나) 선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에 반하여 참여자들의 숙의 과정을 통한 타협과 조정을 강조하였다. 실제적 교육과정 개발은 토대 다지기(platform), 숙의(deliberation), 설계(design)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① (가): 타바(H. Taba), (나): 워커(D. Walker)
② (가): 워커(D. Walker), (나): 타일러(R. W. Tyler)
③ (가): 브루너(J. S. Bruner), (나): 타바(H. Taba)
④ (가): 타일러(R. W. Tyler), (나): 브루너(J. S. Bruner)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교육과정 개발 이론의 대표 절차와 학자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타바(H. Taba): 교사가 참여하는 단원 수준의 귀납적 교육과정 개발을 중시한 학자이다.
워커(D. Walker): 실제 교육과정 개발을 참여자들의 숙의와 조정 과정으로 본 자연주의 모형의 학자이다.
타일러(R. W. Tyler): 목표 설정, 학습경험 선정, 조직, 평가로 이어지는 선형적 합리적 모형의 대표 학자이다.
브루너(J. S. Bruner): 교과의 구조, 발견학습, 나선형 교육과정을 강조한 학자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가)는 현장 교사가 직접 참여하는 단원 수준 개발과 시험적 단원 검증·수정·확산의 절차를 말하므로 타바의 풀뿌리식 모형에 해당한다. (나)는 platform, deliberation, design의 3단계를 제시하므로 워커의 자연주의 모형에 해당한다.
2번: X. (가)를 워커로 연결한 부분이 틀렸고, (나)를 타일러로 연결한 부분도 틀렸다. 올바르게는 (가)는 타바, (나)는 워커이다. 타일러는 목표-경험 선정-조직-평가의 선형적 절차를 제시한다.
3번: X. (가)를 브루너로 연결한 부분이 틀렸고, (나)를 타바로 연결한 부분도 틀렸다. 올바르게는 (가)는 타바, (나)는 워커이다. 브루너는 교과의 구조와 나선형 교육과정을 강조한다.
4번: X. (가)를 타일러로 연결한 부분이 틀렸고, (나)를 브루너로 연결한 부분도 틀렸다. 올바르게는 (가)는 타바, (나)는 워커이다. 타일러는 선형적 합리적 모형, 브루너는 발견학습과 구조 중심 교육과정의 대표 학자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나)의 platform, deliberation, design을 보면 워커를 바로 떠올려야 하는데, 선형적 개발 모형인 타일러와 혼동하면 틀린다. (가)는 교사 참여와 단원 수준 개발이라는 표현이 핵심인데, 이를 브루너의 나선형 교육과정이나 타일러의 목표중심 모형과 섞으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 매칭 문항은 먼저 고유 키워드를 찾으면 된다. 단원 수준의 교사 참여와 시험적 단원 개발은 타바, platform-deliberation-design은 워커, 목표-경험 선정-조직-평가는 타일러, 구조와 발견학습은 브루너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타바는 단원 중심 교사 참여, 워커는 숙의 모형, 타일러는 목표중심 선형 모형, 브루너는 구조와 나선형 교육과정이다.

NoteBase

문 18. 콜브(D. A. Kolb)가 제시한 경험학습 사이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체적 경험

② 반성적 관찰

③ 추상적 개념화

④ 행위를 위한 학습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콜브의 경험학습 사이클 4단계를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콜브의 경험학습은 구체적 경험, 반성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능동적 실험의 순환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 경험은 실제로 해 보거나 겪는 단계이다.
반성적 관찰은 경험을 되돌아보며 의미를 살피는 단계이다.
추상적 개념화는 경험을 일반화하여 개념과 원리로 정리하는 단계이다.
능동적 실험은 정리한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 보며 다시 검증하는 단계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구체적 경험은 콜브 경험학습 사이클의 첫 요소이다. 학습자가 실제 상황을 직접 경험하는 단계이므로 제시된 표현이 맞다.
2번: O. 반성적 관찰은 경험을 돌아보며 무엇이 일어났는지 성찰하는 단계이다. 경험 직후의 성찰을 뜻하므로 올바른 표현이다.
3번: O. 추상적 개념화는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개념, 원리, 가설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콜브 모형의 핵심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4번: X. 틀린 부분은 '행위를 위한 학습'이라는 표현이다. 콜브의 네 번째 단계는 학습 목적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 '능동적 실험'이다. 올바르게는 '능동적 실험' 또는 '적극적 실험'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4번은 행동과 실천이라는 느낌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콜브는 단계명을 엄밀하게 제시한다. 학습의 일반적 성격을 말하는 표현과 이론의 정확한 단계명을 혼동하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험학습 문항은 먼저 4단계의 정확한 명칭을 떠올린 뒤, 각 단계가 경험하기, 돌아보기, 개념화하기, 적용해 보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조하면 판단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콜브는 경험-성찰-개념화-실험의 순환이며, 마지막 단계는 행위 일반이 아니라 능동적 실험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사회학 이론은?

◯ 인간은 대상과 상황에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따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조정하는 주체이다.
◯ 사회적 과정은 행위자가 상대방이 하는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고 상황을 규정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미를 제시하는 역동적 과정이다.
◯ 학교 교육에서 교수학습과정은 상황, 교사, 학생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다양한 관계가 끊임없이 형성 · 발전되는 과정이다.

① 현상학적 사회학
② 민속방법론
③ 상징적 상호작용론
④ 재생산이론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교육사회학의 미시이론 가운데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핵심어인 의미 부여, 상황 규정, 타인 행위 해석을 이론명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① 현상학적 사회학: 사회현실이 인간의 주관적 의미구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② 민속방법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회질서를 만들어 내는지를 탐구한다.
③ 상징적 상호작용론: 인간이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를 해석하고 상황을 규정하며 그에 따라 행위를 조정한다고 본다.
④ 재생산이론: 학교가 지배계급의 문화와 사회구조를 재생산하여 불평등을 유지한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현상학적 사회학도 주관적 의미를 중시하지만, 지문의 핵심은 상대방 행위의 의미 해석과 상황 규정을 통해 상호작용이 전개된다는 점이다. 틀린 표현은 '현상학적 사회학'이다. 올바르게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② X: 민속방법론은 일상적 상호작용이 유지되는 방법과 절차를 밝히는 데 초점이 있다. 지문처럼 행위자가 의미를 부여하고 타인의 행위를 해석하며 자신의 행위를 조정하는 과정을 전면에 둔 설명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틀린 표현은 '민속방법론'이다. 올바르게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③ O: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인간을 의미를 해석하는 능동적 주체로 보고, 사회과정을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상황을 규정하고 의미를 주고받는 역동적 과정으로 본다. 지문의 모든 진술과 일치한다.
④ X: 재생산이론은 학교교육이 문화적 재생산과 사회불평등의 유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시적 관점이다. 지문처럼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를 구성한다는 설명과는 초점이 다르다. 틀린 표현은 '재생산이론'이다. 올바르게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주관적 해석'만 보고 현상학적 사회학으로 고르기 쉽다. 그러나 지문에는 '상대방이 하는 행위의 의미를 해석', '상황을 규정', '자신의 의미를 제시'라는 상호작용 핵심어가 반복되므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좁혀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미시 교육사회학 이론 문제에서 의미 부여, 상황 규정, 타인 행위 해석, 행위 조정이 함께 나오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우선 판단한다. 주관적 의미만 강조되면 현상학, 일상적 질서 형성의 방법이 강조되면 민속방법론, 불평등 재생산이 강조되면 재생산이론으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의미 해석, 상황 규정, 상호작용의 세 단어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20. 교육기회 점유수준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학률: 특정 학교급이나 학년에 해당하는 인구 중 취학 중인 학생 수의 비율

② 진급률: 입학 당시 학생 수를 기준으로 각 학년에서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학생 수의 비율

③ 탈락률: 특정 학년에 대한 낙제자 및 퇴학자 수를 기준 연도 학생 수로 나눈 비율

④ 교육선발지수: 전체 인구에 대한 특정 집단의 구성비를 전체 학생에 대한 특정 집단 학생 구성비로 나눈 비율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교육기회 점유수준 지표의 정의를 서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취학률은 해당 학교급·학년 인구 중 실제로 취학 중인 학생의 비율이다. 진급률은 한 학년에서 다음 학년으로 계속 올라간 학생의 비율이다. 탈락률은 기준 학생 수 중 낙제·퇴학 등으로 학업 과정에서 이탈한 학생의 비율이다. 교육선발지수는 전체 학생 집단 안에서 특정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전체 인구 안에서 그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값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취학률은 특정 학교급이나 학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상 인구를 분모로 하고, 실제 취학 중인 학생 수를 분자로 하여 계산하는 지표이므로 설명이 맞다.
2번: O. 진급률은 입학한 학생 집단을 기준으로 각 학년에서 다음 학년으로 계속 진급한 비율을 보는 지표이므로 설명이 타당하다.
3번: O. 탈락률은 기준 학생 수 가운데 낙제자나 퇴학자처럼 학업 과정에서 이탈한 학생 수의 비율을 뜻하므로 설명이 맞다.
4번: X. 틀린 부분은 "전체 인구에 대한 특정 집단의 구성비를 전체 학생에 대한 특정 집단 학생 구성비로 나눈 비율"이라는 방향이다. 교육선발지수는 반대로 전체 학생 중 특정 집단의 구성비를 전체 인구 중 그 집단의 구성비로 나눈 비율이다.

오답 포인트

교육선발지수는 분자와 분모의 방향을 뒤집어 제시하면 쉽게 헷갈린다. 4번은 용어 자체는 맞지만 비교 방향을 거꾸로 써서 틀리게 만든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교육기회 지표 문제는 먼저 분모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해당 인구를 분모로 하면 취학률, 학생 집단 내 이동을 보면 진급률·탈락률, 학생 구성비와 인구 구성비를 비교하면 교육선발지수로 판단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취학률은 취학 여부, 진급률은 위로 이동, 탈락률은 이탈로 구분한다. 교육선발지수는 (전체 학생 중 특정 집단 비율) ÷ (전체 인구 중 특정 집단 비율)로, 분자가 학생 구성비, 분모가 인구 구성비임을 기억하면 방향을 헷갈리지 않는다.

NoteBase

문 21. 통찰학습(insight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문제장면의 다양한 요소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갑자기 문제를 해결한다.
ㄴ. 다양하고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통해 점진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ㄷ. 통찰을 통해 획득된 지식은 장기간 기억되지 않는다.
ㄹ. 통찰을 통해 획득된 원리는 다른 문제장면에 쉽게 전이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통찰학습의 핵심 특징을 시행착오학습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통찰학습은 문제장면의 요소들 사이 관계를 재구성하여 해답을 갑자기 파악하는 학습이다. 시행착오학습은 여러 반응을 반복하다가 점진적으로 올바른 반응이 강화되는 학습이다. 통찰로 얻은 해결 원리는 비교적 오래 유지되고 유사한 장면에 전이되기 쉽다.

선지별 해설

1번 X: ㄱ은 맞지만 ㄴ이 틀려서 오답이다. ㄱ의 '다양한 요소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갑자기 문제를 해결한다'는 통찰학습의 전형적 특징이다. 반면 ㄴ의 틀린 표현은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통해 점진적으로'이다. 올바르게는 시행착오학습은 반복 반응과 점진적 강화로 설명되고, 통찰학습은 갑작스러운 해결로 설명된다.
2번 O: ㄱ과 ㄹ이 모두 통찰학습의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ㄱ은 관계 파악과 갑작스러운 해결을 말하고, ㄹ은 통찰로 얻은 원리가 새로운 문제상황에도 비교적 잘 전이된다는 점을 말한다.
3번 X: ㄴ과 ㄷ이 모두 틀려서 오답이다. ㄴ은 시행착오학습의 특징을 통찰학습에 잘못 붙인 것이다. ㄷ의 틀린 표현은 '장기간 기억되지 않는다'이다. 올바르게는 통찰을 통해 이해한 해결은 기계적 암기보다 오래 기억되는 경향이 있다.
4번 X: ㄹ은 맞지만 ㄷ이 틀려서 오답이다. ㄹ의 '다른 문제장면에 쉽게 전이된다'는 통찰학습의 장점에 해당한다. 그러나 ㄷ은 통찰학습의 지속성과 이해 기반 학습이라는 특징을 거꾸로 서술한 것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ㄴ의 '반복적 시행착오'를 보면 손다이크의 시행착오학습을 떠올려야 한다. 또한 ㄷ처럼 통찰학습을 일회적 번뜩임으로만 보고 기억 지속성이 낮다고 연결하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갑작스러운 해결, 관계의 재구성, 전이가 나오면 통찰학습 쪽으로 판단한다. 반복 연습, 점진적 강화, 시행착오가 나오면 시행착오학습 쪽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통찰학습은 관계를 보고 갑자기 푼다. 시행착오학습은 여러 번 해 보며 점진적으로 익힌다.

NoteBase

문 22. 교육행정의 과정 중 굴릭(L. Gulick)과 어윅(L. Urwick)의 행정관리론에 제시된 행정과정 요소가 아닌 것은?

① 기획(planning)
② 조직(organizing)
③ 명령(commanding)
④ 예산편성(budgeting)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굴릭과 어윅의 행정관리론에서 제시한 POSDCORB 요소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굴릭과 어윅: POSDCORB — 행정관리자의 기능을 7개 머리글자로 체계화한 이론이다. P=기획(Planning), O=조직(Organizing), S=인사(Staffing), D=지휘(Directing), Co=조정(Coordinating), R=보고(Reporting), B=예산(Budgeting)이며, 머리글자를 순서대로 연결하면 POSDCORB가 된다.
페이욜: 관리과정론 — 계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를 관리 기능으로 제시한 이론이다.
이 문항의 핵심은 굴릭과 어윅의 지휘(directing)와 페이욜의 명령(commanding)을 구별하는 데 있다. 지휘(directing)는 조직 내 하급자를 지속적으로 안내·지도하는 기능인 반면, 명령(commanding)은 상급자가 지시권을 행사하는 보다 일방적·단발적 기능으로, 굴릭과 어윅은 명령이 아니라 지휘를 행정과정 요소로 채택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획(planning)은 POSDCORB의 P에 해당하므로 굴릭과 어윅의 행정과정 요소가 맞다.
② O: 조직(organizing)은 POSDCORB의 O에 해당하므로 제시된 행정과정 요소가 맞다.
③ X: 틀린 표현은 명령(commanding)이다. 굴릭과 어윅은 명령이 아니라 지휘(directing)를 제시하였다. 명령(commanding)은 페이욜의 관리과정론에서 쓰이는 기능으로 보는 것이 맞다.
④ O: 예산편성(budgeting)은 POSDCORB의 B에 해당하므로 굴릭과 어윅의 행정과정 요소가 맞다.

오답 포인트

③의 명령(commanding)이 지휘(directing)와 비슷하게 보여 혼동하기 쉽다. 굴릭과 어윅은 POSDCORB로 외우고, 명령은 페이욜의 관리과정론에 연결된다는 점에서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와 행정과정 요소를 묻는 문제는 약어와 대표 키워드로 먼저 판정하는 방식이 유효하다. 굴릭과 어윅이 나오면 POSDCORB를 떠올리고, 보기의 용어가 그 약어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굴릭·어윅 = POSDCORB, 페이욜 = 명령(commanding) 포함의 관리과정론이다.

NoteBase

문 23.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상 교과용도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②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③ “수정”이라 함은 교과용도서의 총 쪽수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④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상 교과용 도서, 인정도서, 검정도서, 수정, 개편의 정의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수정은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않는 변경이고, 총 쪽수의 2분의 1을 넘는 변경은 개편이라는 점이다.

용어 풀이

교과용 도서 =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인정도서 =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거나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이다.
검정도서 =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이다.
수정 = 교과용 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개편 = 교과용 도서의 총 쪽수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핵심 구분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뜻하고, 인정도서와 검정도서는 그 교과용 도서의 유형을 구분하는 개념이다. 또 수정은 부분적인 교정·증감·변경이고, 총 쪽수의 2분의 1을 넘는 변경은 수정이 아니라 개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규정상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선지의 진술이 정의와 일치한다.

② O
인정도서는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이다. 선지의 진술이 맞다.

③ X
총 쪽수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수정이 아니라 개편이다. 수정은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틀린 표현: "수정"이라 함은 교과용도서의 총 쪽수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올바른 표현: 총 쪽수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개편"이고, "수정"은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않는 변경이다.

④ O
검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규정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진술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수정과 개편의 정의를 뒤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법령형 정의 문제에서는 양적 기준이 붙는 표현이 나오면 그 기준이 어떤 용어에 대응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의형 법령 문제는 먼저 용어를 짝으로 묶어 본다. 이 문항에서는 검정도서-검정, 인정도서-인정, 수정-개편 미만, 개편-총 쪽수 2분의 1 초과라는 대응 관계를 확인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검정은 검정을 받은 책, 인정은 없거나 곤란하거나 보충이 필요할 때 인정받는 책, 2분의 1 초과 변경은 수정이 아니라 개편이다.

NoteBase

문 2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교 예산편성기법은?

예산과목을 사업계획별, 활동별로 분류한 다음, 각 세부사업별로 단위 원가에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액을 표시하고, 그 집행의 결과를 측정·분석·평가하는 방법이다.

① 품목별예산제도
② 기획예산제도
③ 영기준예산제도
④ 성과주의예산제도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학교 예산편성기법 가운데 성과주의예산제도의 편성 방식과 판단 기준을 다른 예산제도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품목별예산제도는 인건비, 물건비처럼 지출 대상을 품목 중심으로 나누어 통제하는 예산제도이다.
기획예산제도는 장기 계획과 단기 예산을 연계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배분을 중시하는 예산제도이다.
영기준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영점에서 재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산제도이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업과 활동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해 예산액을 산정하며 집행 결과를 측정·분석·평가하는 예산제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을 세부 품목별로 나누어 지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제시문처럼 사업계획별·활동별 분류, 단위원가와 업무량의 결합, 결과 평가를 중시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품목별예산제도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지출 대상 통제 중심의 예산제도이다.
② X: 기획예산제도는 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핵심이며, 여러 사업 대안을 비교하여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 초점이 있다. 제시문은 사업별 활동과 산출을 기준으로 예산을 짜고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이므로 기획예산제도의 설명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기획예산제도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계획 연계와 자원배분 중심의 예산제도이다.
③ X: 영기준예산제도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계속사업도 새로 타당성을 입증하게 하는 방식이다. 제시문에는 영점 재검토나 우선순위 결정이 아니라 단위원가와 업무량, 집행 결과 평가가 제시되어 있다. 틀린 표현은 영기준예산제도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전년도 기준을 배제하고 사업 필요성을 다시 심사하는 예산제도이다.
④ O: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예산과목을 사업계획별·활동별로 분류하고, 세부사업별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해 예산액을 계산하며, 집행 후 결과를 측정·분석·평가한다. 제시문의 핵심 표현이 성과 중심·활동 중심 편성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성과주의예산제도와 기획예산제도는 모두 사업을 본다는 점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성과주의예산제도는 단위원가, 업무량, 결과 측정처럼 산출과 성과 관리가 핵심이고, 기획예산제도는 계획과 예산의 연계 및 대안 비교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갈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나 제시문에 단위원가, 업무량, 활동별 분류, 결과 측정·평가가 나오면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먼저 떠올리면 된다. 반대로 품목 통제가 보이면 품목별예산제도, 영점 재검토가 보이면 영기준예산제도, 장기 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보이면 기획예산제도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성과주의예산제도는 활동별 편성, 단위원가×업무량, 결과 평가의 예산제도이다.

NoteBase

문 25. 평가도구의 양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타당도는 재검사, 동형 검사 등으로 구분된다.

② 객관도는 측정 결과에 대해 여러 검사자가 얼마나 일치된 평가를 하느냐의 정도를 말한다.

③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에서 신뢰도는 타당도를 위한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은 아니다.

④ 실용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를 충실하게 측정하는 정도를 말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평가도구의 양호도인 타당도, 객관도, 신뢰도, 실용도의 정의와 상호 관계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의 정도이다. 신뢰도는 측정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게 나오는가의 정도이다. 객관도는 여러 검사자나 채점자가 얼마나 일치되게 판단하는가의 정도이다. 실용도는 검사 실시와 채점이 얼마나 경제적이고 편리한가의 정도이다.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재검사 신뢰도와 동형검사 신뢰도는 신뢰도의 유형이다. 틀린 표현은 "타당도는 재검사, 동형 검사 등으로 구분된다"이다. 올바르게는 "신뢰도는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등으로 구분되고, 타당도는 내용타당도, 준거타당도, 구인타당도 등으로 논의된다"이다.
② O. 객관도는 측정 결과를 여러 검사자나 채점자가 판단했을 때 그 평가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뜻한다. 서술형 채점이나 관찰평정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양호도이다.
③ X.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곧바로 타당한 검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신뢰도는 타당도를 위한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은 아니다"이다. 올바르게는 "신뢰도는 타당도를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이다.
④ X.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를 충실히 측정하는 정도는 타당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표현은 "실용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를 충실하게 측정하는 정도"이다. 올바르게는 "실용도는 검사 실시, 시간, 비용, 채점의 편의성처럼 검사를 실제로 사용하기 쉬운 정도"이다.

오답 포인트

신뢰도와 타당도, 타당도와 실용도의 정의가 자주 서로 바뀌어 출제된다. 특히 ③처럼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에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뒤집거나, ④처럼 타당도의 정의를 실용도에 붙이는 함정에 걸리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양호도 문항은 먼저 기준어를 잡으면 정리가 된다. 검사자 간 일치이면 객관도, 결과의 일관성이면 신뢰도, 재고자 한 것을 제대로 재는 정도이면 타당도, 시간·비용·편의성이면 실용도이다. 그다음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는 "신뢰도는 필요조건, 타당도는 더 높은 개념"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객은 일치, 신은 일관, 타는 정확, 실은 편리로 정리된다.

NoteBase